

역대최대 규모 ‘K-뷰티엑스포 코리아’ 열린다

킨텍스 15일부터 사흘간 행사
국내외 뷰티기업 679개사 참여
이민우 대표 “비즈니스 성과 집중”

국내외 뷰티기업 679개사가 참여하는 ‘2026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88개 부스가 마련되며, 60개국 220개 해외 바이어 기업을 초청해 국내 뷰티기업의 수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킨텍스는 12일 올해 18회째를 맞는 K-뷰티엑스포에 국내 기업 597개사와 해외 기업 82개사 등 15개국 679개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참가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1.3배, 전시면적은 1.4배 확대됐다. 해외 참가기업도 지난해 65개사에서 올해 82개사로 늘었다. 이번 전시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해외 바이어와 국내 뷰티기업을 연결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다.

킨텍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



2026 K-뷰티엑스포 코리아 홍보포스터

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60개국 220개 바이어 기업을 선정했다. 별도로 전시장을 방문하는 바이어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바이어 방문 규모가 1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킨텍스에 따르면 개막에 앞서 진행된 사전 상담에서는 독점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나왔다. 행사장에는 업무

협약 체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수출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망 확보를 위한 ‘MD 유통 상담회’도 진행한다. 틱톡코리아와 와디즈, 롯데홈쇼핑, 한화갤러리아 등 유통사 33개사가 참여해 국내 뷰티기업의 제품을 검토하고 입점 가능성을 논의한다. 현장 유통 담당자가 제품을 선정하는 ‘MD’s Pick’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기도 소재 소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도 마련됐다. 킨텍스는 코트라와 함께 ‘경기도 ESG 전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등 6개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열린다.

16일에는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더우인(Douyin)과 샤오홍슈(RED Note)의 입점 설명회가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뷰티산업 동향과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K-뷰티 인

사이트 콘서트’도 마련된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뷰티풀(BeautyFull)’은 위스타트와 협력해 운영한다. 행사에서 조성한 기부금과 참가기업의 협찬 제품 등은 저소득 가정 여아에게 제공할 화장품·여성용품 꾸러미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전시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킨텍스는 앞으로도 해외 참가기업과 초청 바이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뷰티기업이 해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K-뷰티엑스포의 성장은 국내 뷰티기업을 향한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며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게 상담이 계약으로, 만남이 새로운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제107주년 황단대제

진안군, 화양산 황단대제 봉행

전북 진안군은 지난 9일 주천면 대불리 개화동 화양산 황단에서 제107주년 화양산 황단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화양산 황단제 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전·전주 등지의 유림과 지역 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초헌관은 전춘성 진안군수, 아헌관은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이철희 용담향교 장의가 맡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진안(전북)=허남근 기자 nk1378@

해남 파인비치, LPGA 대회 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총상금 31억5000여 만원이 걸린 국내 유일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 대회가 열린다.

BS그룹은 LPGA 투어 정규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6’을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그룹 소유의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BMW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정규 대회다. 올해는 KLPGA 선수 15명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선수 84명이 출전해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을 다툰다. /해남(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설공단

“부강이 봐야”… 134만명 몰려

부산 북항진수공원 수로에 24일째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강이’를 보기 위해 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이 13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항진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134만8800명에 달한다.

국립수산물박물관은 부강이의 유영 행동과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봉화군

경북도지사기 마라톤대회 성료

경북도와 봉화군이 지난 9일 봉화은어송 이데마공원에서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경북도와 포항시·안동시 등 16개 시·군 소속 공직자 35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10km 단축마라톤 단일 종목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과 최기영 봉화군수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경기를 당부했다.

시·군 종합 부문에서는 울진군이 1위, 구미시가 2위를 차지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구미시 송영준 선수가 37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다. /봉화(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남 함양군 지리산 제일문(좌). 진주시 철도문화공원(우).



단풍으로 물든 경남… 여행명소 부상

경남도, 단풍 여행지 4곳 추천
오도재 일대·대원사 계곡 등 선정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10월이 만든 풍경을 따라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단풍 여행지 4곳을 추천했다.

먼저 함양군 오도재 일대와 지리산 조망공원에서는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지리산의 능선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지리산 제일문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진주시 도심 속 철도문화공원은 옛 진주역 철도시설과 가을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수크림이 어우러져 색다른

가을 풍경을 선사하는 힐링 명소다.

의령군 유곡면에 있는 망우당 객재 우 의병장 생가는 오래된 나무와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어우러진 가을 여행지다. 마을 입구에는 ‘의령 세간리 현고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생가 앞에는 천연기념품 제302호 수령 600년 이상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가 자태를 뽐낸다

산청군 대원사 계곡은 지리산 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며 걷기 좋은 여행지다. 31일 대원사에서 열리는 ‘대원사 산사음악회’를 함께 즐긴다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홍성군, 내포 국가산단 보완 작업 분주

예타 재신청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충남혁신도시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포신도시 미래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홍성군에 따르면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내포신도시 미래산업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최근 재정경제부 예타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군은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등 일부 평가 항목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포 국가산단은 홍성군 홍북읍 일원 약 235만㎡(71만 평)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충남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미래자동차,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

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중간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을 밑돌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지시하고 예타 재신청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군은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확보한 입주 수요가 계획 대비 170%에 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산업적 잠재력을 부각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LH, 충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적정 조성 면적을 재검토하고 재원 조달 구조와 투자유치 전략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은 보완 작업을 거쳐 예타 재신청을 추진하고, 2029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에 집중할 예정이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주시, 충효동·동천지구 침수예방사업

151억 투입… 하수관로 등 시설 정비

경주시가 상습 침수지역인 충효동과 외동읍 동천지구에 국비 89억원과 지방비 62억원 등 총 151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와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경주시는 ‘충효·외동(동천)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을 다음 달 착공해 2028년 8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지성 극한호우에 대비해 5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한 하수도 정비대책에 따라 추진한다. 1시간 77mm, 2시간 105mm, 3시간 126mm의 누적 강우에 대응하도록 정비한다.

충효지구는 집중호우때 충효천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다. 경주초등학교 인근 0.31㎢에 81억 6,300

만원을 들여 하수관로 1.3km를 정비하고, 분당 30㎥ 처리 능력의 빗물펌프장과 387㎡ 규모 흡수정을 설치한다.

외동 동천지구는 저지대에 노후 하수관로의 통수능력도 부족하다. 외동시장 인근 0.73㎢에 69억 4,800만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7km를 정비한다.

두 지역은 2022년 11월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2024년 3월 설계에 착수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8월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했다.

주낙영 시장은 “침수 피해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취약 지역의 배수체계를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인천시, 17일 ‘제물포웨이브 마켓’ 개최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 원도심에서 만나는 가을 피크닉’을 주제로 제3회 제물포웨이브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캠핑존과 피크닉 테마 공간을 비롯해 지역 로컬 브랜드의 핸드메이드 제품, 다채로운 먹거리 및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56개의 로컬 브랜드가 참여한다. 피크닉 도시락, 베이커리, 디저트, 분식 등 다채로운 먹거리는 물론 지역 농산물과 제철 가공식품, 감각적인 공예품

및 리빙 소품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켓 이용객을 위한 실질적인 쇼핑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이번 행사는 마켓 방문이 원도심 관광과 지역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기획되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인천e지’ 앱 홍보부스에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10월 18일에는 노르웨이안 크루즈 하선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와 전용 부스를 운영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